

천년학당

2026 창작선수단 AI 해커톤, 웹콘텐츠(웹소설) 부문

팀 해메리카: 임자연, 전해리

제출: 1~3화, 본문 공백 포함 14,104 자. 3화로 완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긴 연재의 첫 세 회차입니다.

이 작품은

서울은 밤마다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완성되는 거대한 부적입니다. 남산 옛 국사당 터 아래 숨은 도술학교 천년학당에, 서울의 수호신 해치가 한 짝이 검게 타들어 가는 은색 스니커즈를 신고 백 년 만에 찾아옵니다. 서울의 밤길을 잇는 흐름 '야맥'이 끊어졌고, 오전 여섯 시까지 잊지 못하면 그 밤의 행복한 기억이 사라집니다. 물 한 방울 만들지 못하는 1학년 수와 화가 해치를 따라 동대문의 골목으로 나섭니다.

현장 미션

- 은색 스니커즈를 신은 해치: 흙길의 도시가 아스팔트와 지하철 계단의 도시가 되자 해치가 직접 만든 현대의 신물입니다. “오래된 존재도 지켜야 할 도시가 달라지면 자신을 바꾼다.” 해치는 말 대신 은색 스니커즈로 바닥을 두드려 뜻을 전합니다.
- 서울 야간 경제: 야맥은 사람들이 밤에 길을 발견하고, 머물고, 무사히 돌아간 선택이 쌓인 흐름입니다. 도술은 사람의 선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골목을 되살리는 것은 가게가 남겨 둔 등 하나, 새벽시장을 마친 사람들의 발걸음, “내일도 이 길로 올게요”라는 약속입니다.

역할과 작업 방식

임자연은 시나리오와 세계관 기획, 집필을 맡았고 전해리는 AI 운용과 리서치, 피드백을 맡았습니다.

작업 문서를 기획, 확정 설정, 문체 기준, 회차, 취재, 검수, 결정 로그로 나누었습니다. 전해리가 단계마다 템플릿을 만들면 임자연이 집필하고, 서로 검수한 뒤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한 것만 확정 설정으로 넘겼습니다. 집필 중 궁금한 것은 임자연이 묻고 전해리가 조사했습니다. 제안과 문제, 선택과 이유는 채택과 기각을 가리지 않고 결정 로그에 남겼습니다.

유비코에서 한 일

집필 지침을 만들어 1~3화 전체를 한 번 뽑아 보았습니다. 초안은 1인칭이었고, 해치가 스니커즈를 신는 이유와 학당의 매력 이 없었고, 설정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임자연이 이를 토대로 1~3화를 직접 다시 썼고, 한 화마다 전해리가 확정 설정과 대조해 피드백했습니다. 조사 자료 세 묶음(야맥과 야간경제, 남산, 해치)은 제미니로 만든 할루시네이션 방지 검수 하네스로 검수했습니다.

전해리의 리서치와 피드백에는 AI(Claude)를 도구로 썼고, 3화 후반은 두 사람이 정한 방향으로 AI가 고쳐 쓴 안을 검토해 확정했습니다. AI의 제안은 두 사람이 확정 설정에 옮겨 적기 전에는 없는 설정으로 다뤘습니다.

1화. 문턱을 넘은 밤

수는 눈을 떴다.

머리맡 유리컵 속의 물이 가느다란 줄기가 되어 창가를 타고 오르고 있었다. 물줄기가 방향을 틀었다. 방문 쪽이었다.

수는 이불을 걷었다. 발을 바닥에 딛자 손끝이 서늘해졌다. 천년학당 기숙사는 남산 속, 옛 국사당 터 아래에 있었다. 흙과 바

위 아래로는 사시사철 물이 흘렀다. 물의 기운을 타고난 아이들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곤 했다. 수도 입학한 뒤 그 소리가 끊어진 밤을 겪어 본 적이 없었다.

1학년 물 수업에서 배우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듣는 것.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대야 하나를 앞에 두고 두 시간을 앉아 있었다. 물결을 일으키면 혼이 났다. 아직 배우지도 않은 것을 흥내 내지 말고, 이미 흐르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붙잡으라고 했다.

수는 그 수업을 좋아했다. 오래 듣다 보면 어느 것도 버리지 않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오늘 밤의 물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그 소리는 누군가 복도 저편에서 자신을 잡아당기는 것만 같은 소리였다.

쿵.

멀리서 묵직한 충격음이 울렸다. 천장에 매달린 청동 방울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방울 표면에 새겨진 다섯 빛깔 글자가 차례로 눈을 떴다. 목, 화, 토, 금. 마지막으로 수가 푸르게 빛났다.

쿵. 쿵.

옆 침대에서 화가 손전등을 끌어안고 자고 있었다. 깨울까.

수는 잠시 망설였다. 아무 일도 아니라면 둘 다 사감 교수에게 혼이 날 것이다. 어젯밤에도 화는 소등 시간을 넘겨 손전등으로 만화책을 보다가 수면부를 세 번이나 다시 붙여야만 했다.

수는 조심스레 침대에서 내려와 잠옷 차림 그대로 방을 나섰다. 복도는 아직 어두웠다. 방문마다 붙어 있던 수면부의 글자들이 하나씩 흐려지고 있었고 처마 아래 나란히 웅크리고 있던 종이 새들은 고개만 들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천년학당의 정문이었다.

수는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갔다. 천년학당은 중앙당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전각들이 둥글게 이어진 구조였다. 낮에는 오행 수업을 받는 교실과 연무장, 부적실과 기물고가 서로 다른 마당을 향해 열렸다. 밤이 되면 회랑이 접히고 전각 사이의 거리가 길어져, 허락 없이 돌아다니는 학생을 제자리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회랑이 수를 중앙당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중앙당에 도착했을 때 정문에 붙은 열두 장의 봉인이 떨어지고 있었다. 문을 지키는 귀면문도 감았던 눈을 뜬 채 바깥을 노려보았다.

천년학당의 정문은 안에서는 열 수 있어도, 밖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문이었다. 남산을 수백 번 오른 사람도 학당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앞을 지나칠 뿐이었다.

그 문을 누군가 두드리고 있었다.

쿵.

세 번째 충격과 함께 맨 위의 봉인이 찢어졌다.

수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빛장이 저절로 밀려났다. 무거운 문짝이 안으로 열리며 남산의 찬 밤공기가 중앙당을 훑고 지나갔다.

문밖에 해치가 서 있었다.

푸른 갈기는 비에 젖어 목덜미에 달라붙었고, 단단한 몸은 쉴 새 없이 들썩였다. 네 발에는 모두 은색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다.

수는 해치를 그림으로만 보았다.

궁궐의 처마와 오래된 비석, 서울을 소개하는 책의 첫 장. 어느 곳에서든 해치는 앞발을 세운 채 위엄 있게 서울을 굽어보고 있었다.

오래된 그림 속 해치는 맨발이었다. 서울이 흙길과 성곽의 도시였을 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했다. 그러나 아스팔트가 깔리고 육교와 지하철 계단, 한강을 건너는 다리가 생기자 해치에게도 새로운 발이 필요해졌다.

신물사 수업에서 교수는 은색 스니커즈가 해치 어른신이 직접 만든 현대의 신물이라고 가르쳤다. 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오래된 존재도 지켜야 할 도시가 달라지면 자신을 바꾼다는 것을.

그림 속 해치는 지쳐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수의 앞에 서 있는 해치는 지쳐 있었다.

왼쪽 앞발의 스니커즈만 밑창부터 신발 끈까지 검게 물들어 있었다. 젖은 먹물이 은빛 천을 타고 번지듯 검은 얼룩이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해치... 어른신...?”

해치가 수를 바라보았다. 금빛 눈에 비친 수의 모습이 작게 흔들렸다.

해치는 아무 말 없이 중앙당으로 들어왔다. 문턱을 넘는 순간 천년학당의 문 깊은 곳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났다.

낮고 긴 울음이 학당 전체로 번졌다.

중앙당의 한가운데에는 서울을 새긴 거대한 돌판이 놓여 있었다.

산과 물, 옛길과 성곽, 도로와 지하철 노선이 대동여지도처럼 새겨진 천년학당의 중심인 서울맥도였다.

낮에는 회색 돌에 새긴 정교한 지도에 불과했지만, 해가 지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만든 야맥이 은빛 실처럼 그 위에 나타났다.

오늘은 달랐다.

돌판 전체에 뿌연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은빛 한강도, 땅속을 달리는 지하철의 불빛도, 골목을 잇는 발자국도 희미한 안개 아래에서 형체만 겨우 드러났다.

해치가 서울맥도 위로 올라섰다. 검게 물든 앞발이 동쪽을 향해 가리켰다.

쿵.

발이 닿은 자리에서 안개가 둥글게 밀려났다.

DDP 부근에서 광희문을 지나 신당으로 이어지던 은빛 길이 드러났다. 실처럼 이어져야 할 빛은 중간중간 잘려 있었다. 끊어진 자리마다 먹물이 번지듯 검은 얼룩이 퍼졌다. 그 길을 걷던 작은 발자국들이 방향을 잃고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하나씩 불이 꺼졌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터졌다.

-전원 기상. 신수의 청원이다.

학당주의 전음이었다.

문이란 문이 한꺼번에 열렸다. 잠옷 차림의 1학년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반대편 전각에서는 허리춤에 부적함을 매단 2학년들이 달려왔고, 3학년들은 전음이 끝나기도 무섭게 도복을 갖춰 입고 중앙당으로 들어섰다.

한 학년에 오행별 열 명씩, 모두 신 명. 세 학년 백오십 명이 중앙당과 그 둘레의 회랑을 채웠다. 평소 식당에서 마주치면 이름도 모른 채 지나치던 선배들까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수가 입학한 뒤 처음이었다.

기숙사 처마 밑에 잠들어 있던 종이 새들도 날아올랐다. 새들은 주인의 어깨에 내려앉자 붓과 방울, 작은 나침반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화는 잠옷 바지에 교복 외투를 걸친 채 양손에는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계단을 뛰어 내려왔다.

“뭐야? 봉수가 아니라 직접 오신 거야?”

“그런 것 같아.”

“해치 어르신께서?”

화는 해치를 발견하자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왜 나 안 깨웠어?”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봉인이 찢어지냐?”

화는 투덜거리면서도 해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앞줄에 도착한 학생들이 해치 앞에 몸을 낮췄다. 3학년으로 보이는 학생 하나가 급히 무릎을 꿇자 뒤따라 온 1학년들도 엉거주춤 자세를 따라 했다.

“진짜 계셨네...?”

누군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봉수가 오르는 밤은 수도 여러 번 보았다. 남산 능선에 산 아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불빛이 서면 교수들은 서울맥도를 들여다봤다. 어쩔 땐 상급생 몇이 현장으로 나간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밤새 흐름을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신수가 제 발로 학당의 문을 넘었다.

“백 년 만에 뵙습니다, 해치 님.”

학당주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뒤따라온 교수들도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수는 교수들이 누구에게 그렇게 절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학당주가 해치의 발을 살폈다.

“해치 님, 먼저 신물을 살펴도 되겠습니까?”

해치가 고개를 저었다.

“검은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해치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앞발로 서울맥도를 가리켰다.

탁, 탁.

학당주가 입을 다물었다.

“수부장.”

물의 기운을 가르치는 학과장이 앞으로 나왔다. 수업 시간마다 대야 앞에서 눈을 감고 했던 것과 똑같이 두 눈을 감더니 서울맥도 가장자리에 손바닥을 댔다.

수부장이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돌판을 뒤덮은 안개가 물결처럼 손끝을 따라왔다. 다른 교수들이 네 방향에서 방울을 울리자 안개가 얇은 띠로 말려 올라갔다.

안개 아래 감춰졌던 야맥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 군데. 또 한 군데. 은빛 실이 꿰어진 자리가 먹물처럼 검었다.

동대문과 신당 사이. 한강 둔치와 그 곁의 시장. 남산 자락. 광화문 뒤편의 오래된 골목.

네 곳이 한꺼번에 꿰어져 있었다.

“전쟁 때도, 몇 해 전 역병 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나이 지긋한 교수가 낮게 말했다.

그 사이 걷어 냈던 안개가 다시 서울맥도 안쪽으로 기어들었다. 해치가 앞발로 검은 지점을 짚을 때마다 안개가 밀려났고, 그 아래에서 새로운 균열이 짧게 번뜩였다.

학당주가 지도의 네 지점을 차례로 살폈다.

“오전 여섯 시. 맥도가 밤을 거두기 전까지다.”

수는 중앙당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오전 두 시 십칠 분. 세 시간여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때까지 잊지 못한 자리는 끊어진 채로 굳는다. 오늘 밤 그곳에서 만들어진 기억도 함께 사라진다.”

학생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누군가는 자신의 집이 있는 방향을 찾았고, 누군가는 지도 위 균열이 보이는 곳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화도 손전등을 짝 켜 채 남산 자락의 균열을 바라보았다.

“3학년은 구역장, 2학년은 보조, 1학년은 상급생 뒤에 붙어서 보고 배운다. 각 오행의 교수들은 현장에서 맥을 확인하고, 균열이 번지면 즉시 전음으로 알린다.”

중앙당을 둘러싼 오방의 기물궤가 차례로 열렸다. 수의 궤에서는 나침반이, 목의 궤에서는 나무패와 접힌 종이가 날아 나왔다. 화의 궤에서는 낫쇠 등과 불씨통이 떠올랐고 토의 궤에서는 작은 돌말뚝들이, 금의 궤에서는 방울과 바늘, 가느다란 쇠사슬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2학년들과 3학년들은 자신을 알아보고 날아온 기물 하나씩을 받아 들었다. 1학년들에게 날아온 것은 아무 무늬도 없는 나무패뿐이었다. 느끼고, 기록하고, 알릴 것. 절대 나서지 않을 것. 아직 도술을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신입생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조 편성을 부른다.”

학당주가 첫 번째 나무패를 들었다.

“남산 자락은 토와 목의 3학년이 구역을 맡는다. 토부장이 지맥을 고정하고 목의 2학년들이 오래된 길을 찾는다. 1학년 토, 목 조는 표식을 운반한다.”

선배들이 짧게 대답하자 허공에 떠 있던 돌말뚝과 나무패가 각 조의 앞으로 날아갔다.

“광화문 뒤편은 금과 목, 골목의 경계를 다시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가게의 이름을 기록한다.”

금빛 방울과 접힌 종이 새들이 두 번째 조 위로 모였다.

“한강 둔치와 시장은 수와 화가 맡는다. 사람을 억지로 움직이지 마라.”

불씨통과 나침반이 세 번째 조를 향했다.

세 개의 균열에 배치가 끝났다.

남은 것은 해치가 처음 앞발을 내려놓았던 곳. 동대문과 신당 사이.

학당주가 마지막 나무패를 집어 들었다.

수는 그제야 서울맥도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안개가 걷힌 뒤부터 너무 많은 물의 기운이 밀려들고 있었다. 한강의 기운, 지하 배수로를 지나는 빗물, 처마 끝에 맺힌 물방울. 모든 물길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수에게 겹쳐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모든 길이 자신을 불렀다.

그때 잠옷 소매가 축축해졌다. 해치였다.

“.....저요?”

해치는 대답 대신 소매를 한 번 더 당겼다.

모든 학생의 시선이 수에게 쏠렸다.

수는 슬그머니 소매를 빼 보려 했다. 그러자 해치는 더 단단히 수의 소매를 물었다.

“해치 님.”

수부장이 난처한 얼굴로 다가왔다.

“이 아이는 1학년입니다. 아직 기운을 붙잡는 단계라 물 한 방울 만들지 못합니다. 3학년 중에 맥을 잘 짚는 아이가 있으니...”

탁, 탁.

해치가 은빛 오른발로 돌바닥을 두 번 두드렸다. 은색 스니커즈 밑으로 둥근 발도장이 짧게 빛났다.

교수는 입을 다물었다.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청원이었다.

“해치 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이유가 있으시겠지...” 학당주가 말했다. “수는 해치 님과 동행한다.”

학당주가 마지막 나무패를 해치 앞에 내려놓았다.

“동대문과 신당 사이는 해치 님께서 가십니다. 수는 해치 님 곁에서 기록한다.”

“저도 가겠습니다!”

화가 곧바로 손을 들었다. 학당주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화는 신경도 쓰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다.

“수를 혼자 보낼 수는 없습니다! 물이 가는 데 불도 가야지요!”

화가 득의양양하게 손전등 두 개를 들어 보였다.

학당주가 두 아이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너희는 아직 1학년이다. 기운을 느낄 수 있을 뿐, 밖으로 꺼낼 수는 없어. 해치 님 곁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상한 것이 보이거나 들리면 즉시 알리고 물러난다.”

해치가 오른쪽 앞발로 바닥을 두 번 쳤다. 탁, 탁.

수부장이 아무 무늬 없는 나무패 두 개를 챙겨 두 아이에게 건넸다.

“맥패다. 도술은 쓸 수 없어도 네가 느끼는 기운은 여기에 기록해 둘 수가 있다.”

수가 맥패를 쥐자 나뭇결 사이로 가느다란 푸른 선이 번졌다. 화의 맥패는 손바닥의 온기를 머금고 붉게 달아올랐다.

“검게 변하면 즉시 놓아야 한다.”

수부장이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도망쳐.”

화는 침을 꿀꺽 삼켰다.

해치가 바닥을 세게 쳤다. 학당주가 서울맥도 앞으로 나아갔다.

“길을 연다.”

교수들이 지도 둘레에 섰다. 지팡이와 붓, 검과 방울이 동시에 서울맥도를 향했다.

“모두 나갈 준비를 하라.”

수는 수업에서 길문을 배운 적이 있었다. 1학년은 먹으로 문들을 반듯하게 그리는 법과 문턱을 넘을 때 지켜야 할 예법만 익혔

다. 2학년이 되어 자신의 술결을 발견하면 손바닥만 한 틈을 열 수 있었고, 3학년이 되어야 교수의 도움을 받아 사람이 통과 할 문을 세울 수 있었다.

길문 수업을 맡은 교수는 귀가 아프도록 같은 말을 반복했다. 길문은 거리를 없애는 도술이 아니다. 이미 이어진 길을 잠시 접는 도술이다. 그때는 둘의 차이를 알지 못했다.

교수 하나가 지도 위의 은빛 선을 두 손가락으로 집었다. 선이 실처럼 위로 끌려 올라왔다. 은빛 실은 허공에서 곧게 뻗더니 사람 키보다 큰 문틀을 만들었다. 첫 번째 문 너머로 비 내리는 한강 다리가 나타났다. 두 번째 길문 안에서는 막차가 빠져나간 지하철의 불빛이 깜박였다. 세 번째 문 너머에는 젖은 성곽길이 고요히 이어졌다.

수는 길문을 실제로 보는 것이 처음이었다. 지도 위의 가느다란 선 하나가 서울의 서로 다른 밤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조별로 문 앞에 섰다. 3학년이 가장 앞, 2학년이 가운데, 1학년이 뒤였다. 열린 문 너머에서 한강 바람과 젖은 돌 냄새가 한꺼번에 중앙당으로 밀려들었다.

그러나 해치가 가리킨 동쪽의 선은 움직이지 않았다. 교수가 다시 손을 뻗었다. 검게 변한 선을 붙잡아 당기는 순간 야맥이 손가락 사이에서 재처럼 부서졌다.

“광희문 쪽 길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수는 끊어진 자리를 바라보았다. 아무런 흐름도 느껴지지 않았다. 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부분만 도려낸 것같이 느껴졌다.

해치는 수의 소매를 물고 정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탁, 탁.

수와 화는 해치를 따라 정문 쪽으로 향했다. 천년학당의 정문이 짐승의 울음 같은 낮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밖에는 비에 젖은 남산의 돌계단만 어둠 속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해치가 먼저 문턱을 넘었다. 검게 물든 스니커즈 아래에 은빛 발자국 하나가 찍혔다.

화가 손전등을 켰다.

“수야, 가자.”

수는 맥패를 움켜쥐고 해치의 뒤를 따랐다.

2화. 꺼지지 않은 불

해치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갈림길마다 은색 스니커즈를 끌었다. 젖은 돌 위에 남은 빛이 화살촉처럼 꺾여, 두 아이가 내려올 때까지 반짝였다. 수는 세 번째 갈림길에서야 그것을 알아챘다.

“저희 기다려 주시는 거였네요!”

산 아래로 내려와 큰길을 따라 걷는 동안 비가 굵어졌다.

길 건너 시장에서는 비닐 꾸러미를 실은 손수레가 오갔다. 가게 앞 사람들이 비를 털며 서로를 불렀다. 멀리 DDP의 둥근 지붕이 보였다.

해치는 그 불빛을 등지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다섯 걸음쯤 뒤따랐을 때, 사람들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다.

비는 계속 내렸다. 외투를 때리는 빗방울은 들리는데, 골목 끝에 떨어지는 비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해치의 꼬리가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다.

달린 세탁소.

유리문 안쪽에는 비닐을 씌운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처마 밑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맞은편 꽃집도 셔터를 내렸는데 골목을 향한 작은 등은 남겨 두었다.

화가 세탁소 앞에 쪼그려 앉아 손바닥을 바닥 가까이 댔다.

“이상하다… 검은 기운이 이렇게 짙는데 땅은 아직 따뜻해.”

“원래는 좋은 길이었다는 거야?”

“나도 모르지! 근데… 뭔가 이상해.”

해치가 세탁소 문턱에 코를 댔다.

돌 틈에 오래된 은빛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발자국 가장자리에 검은 물기가 스며들었다.

해치가 골목 안쪽을 보았다.

수도 그쪽을 보았다. 빗물이 이상했다.

세탁소 앞은 내리막인데, 바닥의 물은 골목 안쪽으로 거슬러 오르고 있었다. 빗물 위에 떨어진 꽃잎 하나가 배수구를 지나쳤다.

수는 맥패를 꺼냈다.

손에 쥐자 푸른 선이 골목 모양으로 뻗었다. 선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둥글게 말렸다.

“물이 같은 데를 돌아.”

해치가 돌 틈에 앞발을 밀어 넣었다. 은색 신발 끈이 길게 풀리더니 빗물 속으로 파고들었다. 해치가 앞발을 들어 올렸다.

골목 바닥에서 검은 실 한 가닥이 뿔뿔히 나왔다. 젖은 머리카락처럼 가늘던 것이 허공에서 갑자기 몸을 부풀렸다.

그 안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한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다. 아이의 웃음과 늙은 여자의 웃음, 술에 취한 남자의 웃음이 검은 실 안에서 뒤엉켰다.

화가 천천히 일어났다.

“저게… 뭐야…?”

검은 실이 골목의 빗물을 빨아들였다.

한 가닥이 두 가닥으로, 두 가닥이 수십 가닥으로 갈라졌다. 돌 틈과 담장, 세탁소 문턱에 박혀 있던 검은 실들이 일제히 허공으로 끌려 올라왔다.

실은 골목 한가운데서 서로 엉켰다.

사람 키를 넘고, 전봇대의 절반까지 차오른 커다란 검은 덩어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누군가 버리고 간 그림자를 한데 뭉쳐 놓은 것처럼 표면이 계속 출렁였다. 검은 몸 곳곳에서 신발 밑창과 손자국, 닫힌 문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덩어리가 한 번 숨을 들이마셨다.

세탁소 처마 등이 어두워졌다.

맞은편 꽃집의 작은 등도 불안하게 깜박였다.

화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저건가 봐! 저게 이 골목의 온기를 먹고 있어!”

검은 덩어리가 몸을 돌렸다.

영킨 실 뭉치 한가운데가 느슨하게 벌어졌다.

그 안에서 또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소리가 가까이에서 났다. 바로 귓가에서 웃는 것이었다. 제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 골목에서 흠친 웃음이었다.

신물사 수업에서 들은 이름이 떠올랐다.

망각귀.

그때였다. 해치가 땅을 박차다.

은색 스니커즈가 세탁소 벽을 밟고 튀어 올랐다. 해치는 허리의 한가운데를 앞발로 내리찍었다.

광!

은빛 발도장이 검은 몸 깊숙이 박혔다.

덩어리가 크게 일그러졌다.

은빛이 박힌 자리에서 오히려 수십 가닥의 검은 실이 솟아 신발 끈을 감고 덩어리 안으로 끌어당겼다.

“해치 어르신!!”

해치가 몸을 비틀었다.

은색 스니커즈가 검은 몸의 표면을 길게 찢었다.

벌어진 틈에서 검은 피 대신 빛이 쏟아졌다.

교복을 입은 아이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웃고 있었다.

검은 우산 하나를 나눠 쓴 두 사람이 골목을 걸었다.

장면들은 나타나자마자 검은 덩어리 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다.

해치의 앞발이 멈췄다.

그 순간 검은 실들이 해치의 왼쪽 앞발을 휘감았다. 이미 검게 물들었던 스니커즈 위로 먹빛이 더욱 짙어졌다.

해치가 땅으로 떨어졌다.

수는 방금 사라진 장면들을 바라보았다.

“저 안에... 이 골목의 기억 같은 게 있나 봐...”

수는 해치가 멈춘 이유를 알아차렸다.

저 기억들을 두른 채로 베면, 안에 갇힌 기억까지 함께 찢어진단다.

검은 덩어리가 해치를 향해 몸을 쏟아 냈다.

해치는 네 발로 골목을 내달렸다. 은색 발자국이 덩어리 사방에 찍혔다. 네 개의 발도장 사이로 빛이 솟아올라 검은 몸을 둘러쌌다.

망각귀가 은빛 벽에 부딪혔다.

골목 전체가 흔들렸다.

“우리가 도와야 할 것 같아...”

화가 손바닥을 앞으로 뻗었다.

망각귀의 겉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런데 한가운데에서 아직 사라져 가고 있지만 분명히 살아 있는 온기가 있었다.

“수야, 저 안에 뭔가 살아 있어.”

수가 눈을 감았다.

거꾸로 흐르는 빗물과 땅 밑의 하수관, 벽을 타고 내리는 물소리가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 모든 소리 사이에서 아주 느리고 불규칙한 흐름 하나가 들렸다.

숨을 들이마실 때 잠깐 움직였다가 멎고, 다시 조금 흐르는 소리.

“뭔가가 아니야.”

수가 검은 덩어리를 바라보았다.

“사람이야.”

그 순간 덩어리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검은 몸의 표면이 크게 부풀었다. 잠깐 벌어진 틈 사이로 손에는 젖은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화면에 두 글자가 떠 있었다.

아빠.

손이 다시 검은 덩어리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골목 입구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빗속을 뛰어오고 있었다.

“민서야!!”

전화벨이 검은 덩어리의 뱃속에서 다시 울렸다.

검은 덩어리 안에서 민서의 눈이 잠깐 떠졌다.

“아...빠...?”

망각귀가 민서의 얼굴을 다시 삼켰다.

화가 해치에게 외쳤다.

“해치 어르신, 저 안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 주세요! 수야, 가자!”

수는 대답 대신 화의 뒤에 섰다.

3화. 집에 가요

검은 덩어리 안에서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휴대전화 불빛이 올라오다가 이내 검은 몸속으로 가라앉았다.

“저 안에 있는 기운이 약해지고 있어요.”

수가 해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해치는 움직이지 않았다.

앞발이 들렸다가 도로 내려갔다. 당신이 들어가면 저 안의 기억이 찢어진단다. 그렇다고 아이를 들여보내는 것도 내키지 않으시는 것 같았다.

검은 덩어리가 크게 부풀었다.

탁.

해치가 은색 스니커즈로 골목 바닥에 발도장을 찍었다. 하나, 둘, 셋, 넷. 발도장에서 솟은 빛이 검은 덩어리를 사방에서 잡아 당겼다.

찢는 것이 아니었다. 영킨 실 사이를 빛으로 벌려,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것이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틈이 생겼다. 틈 가장자리로 빛 조각 하나가 새어 나오려 하자 해치가 옆구리로 막아섰다.

화가 먼저 발을 내디뎠다.

그때였다. 수는 화의 손에 들려 있던 손전등을 낚아채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몸이 먼저 나갔다.

“야, 수야!”

화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끊겼다.

빛이 닿지 않았다.

수는 손전등을 흔들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잠시 뒤 어둠 속에 파란 대문 하나가 나타났다.

그 옆에 또 하나, 다시 하나.

똑같은 문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늘어섰다.

문 앞에 민서가 앉아 있었다.

몸의 절반은 검은 바닥에 잠겨 있었다.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다른 손에는 다 젖은 문제집을 쥐고 있었다.

수가 달려가 팔을 잡았다.

“일어날 수 있어요?”

민서가 천천히 눈을 떴다.

“누구세요?”

수가 민서를 당겼다.

검은 바닥도 함께 늘어났다. 검은 실 수십 가닥이 민서의 다리와 허리를 감고 있었다. 파란 문들이 한꺼번에 열렸다.

“수야, 이쪽이야.”

모든 문 안에 화가 서 있었다. 같은 얼굴로 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수는 화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민서의 허리까지 검은 기운이 차올랐다.

문들이 목소리를 바꿨다.

‘민서야.’

‘아빠 여기 있어.’

‘이쪽이야.’

민서가 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기울일 때마다 더 깊이 잠겼다.

어느 문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수는 귀를 기울였다. 조금만 더 들으면 확실한 문 하나가 나올 것 같았다. 늘 그랬다.

손에 쥔 맥패 끝이 검게 물들기 시작했다. 놓고 도망치라고 배웠다. 수는 놓지도, 고르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검은 기운이 민서의 가슴까지 올라왔다.

그때 다른 소리가 들렸다.

문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문이 하나도 없는 쪽, 등 뒤의 어둠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다.

“아니, 민서 아빠. 우산은 어찌고 이 비를 다 맞고 있어요? 민서 아직이에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세탁소 아줌마?”

“평소엔 열두 시면 들어오는 애가 오늘은 왜 이리 늦어. 어머, 이 개는 또 뭐야. 운동화를 신겼네? 넌 누구니, 이 시간에 잠옷 바람으로.”

“저, 저는 민서 친구요!”

화였다. 하나뿐인 화의 목소리였다.

“이거 써요.”

“.....꽃집에 불이 켜졌네요.”

민서 아빠의 목소리였다. 문들이 흉내 내던 것보다 훨씬 쉬어 있었다.

“저 집도 참 열심이야. 민서 들어올 시간만 되면 꼭 저 불을 켜 놓잖아요. 이 골목이 밤만 되면 어둡잖아. 여기서 하나 켜고, 저기서 하나 켜면 민서 집 파란 대문까지는 보이거든.”

끼릭, 전구를 돌려 끼우는 소리가 났다.

어둠 한쪽이 아주 조금 밝아졌다.

“불 켜 두니까 새벽시장 끝나고 이 길로 다니는 사람도 늘고, 늦게 옷 맡기러 오는 손님도 생기더라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늦게 오는 애를 어두운 길 걷게 하면 좀 그렇잖아.”

“애, 너는 손전등을 왜 바닥에 세워 놔?”

“친구가 나올 때 보라고요.”

“아저씨, 우산 펴세요!”

투둑.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이 골목에 들어온 뒤로 처음 듣는 빗소리였다.

문들은 그 소리를 따라 하지 못했다. 저것이 흉내 낼 수 있는 것은 이미 삼킨 소리뿐이었다. 지금 막 떨어지는 비는 저것의 것이 아니었다.

일곱 살 때 서울역 환승 통로에서 엄마 손을 놓친 적이 있었다.

청소하던 할아버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수의 손을 잡고, 떠밀려 온 길을 한 칸씩 같이 되짚어 걸었다. 두 번을 틀렸고 세 번째에 엄마가 있었다.

할아버지도 길을 몰랐던 것이다. 틀리면서 같이 걸어 준 것이다.

확실해지는 때는 오지 않는다. 수는 처음으로 그것을 알았다.

“문이 아니에요.”

수는 빗소리가 나는 어둠을 가리켰다. 손가락이 떨렸다.

“저쪽이에요. 틀리면..... 제가 틀린 거예요.”

수는 쓸모없는 손전등을 켰다. 민서의 손을 잡았다.

“어디서부터 밀려왔어요? 거기까지 같이 가요.”

한 걸음.

밭밀에서 아주 가는 물소리가 다음 디딜 자리를 알려 주었다. 끊어진 자리 너머로, 아직 아무도 건지 않은 쪽으로.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민서를 감은 검은 실이 한 가닥씩 풀렸다. 문들이 등 뒤에서 한꺼번에 이름을 불렀다. 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멀리 주황빛 점 하나가 보였다.

바닥에 세워 둔, 제일 작은 손전등이었다.

틈 밖으로 나오자 비가 얼굴을 때렸다.

해치가 네 발로 버티고 서 있었다. 은색 스니커즈 밑창이 젖은 돌 위에서 한 뼘씩 밀려나고 있었다. 수와 민서가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해치는 빛을 거두고 주저앉았다.

어른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어두운 골목에서 딸이 걸어 나왔을 뿐이었다.

“민서야!”

남색 우산이 민서 위로 기울었다.

“아빠, 나 길을 잃었어. 우리 집 골목인데.”

“집에 가자.”

민서가 세탁소 처마 등과 꽃집의 작은 등을 차례로 올려다보았다.

“아줌마. 내일도 켜 주실 거죠? 저 내일도 이 길로 올게요.”

“그럼, 켜 두지.”

그 순간 망각귀가 몸을 뒤틀었다.

검은 실들이 힘을 잃고 풀렸다. 이미 삼킨 밤은 제 것이어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삼킬 수 없는 모양이었다. 덩어리는 실 몇 가닥으로 줄어들어 배수구 틈으로 흘러 들어갔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민서 아빠가 해치를 내려다보았다.

“너희 개니? 운동화를 다 신었네.”

해치는 등을 돌렸다. 꼬리만 움직였다.

수는 웃음을 참았다. 몹시 언짢으신 것 같았다.

다섯 시가 넘자 큰길 쪽이 소란해졌다.

새벽시장을 마친 사람들이 비닐 꾸러미를 들고 골목으로 들어섰다. 세탁소 등에서 꽃집 등으로, 꽃집 등에서 파란 대문 쪽으로. 불이 이어진 길을 따라 걸었다.

그 밭밀에서 은빛 실이 한 가닥씩 이어졌다.

수의 맥패에서 둥글게 말렸던 푸른 선이 곧게 펴졌다.

해치가 그 발자국들을 오래 내려다보았다. 해치가 찍은 발도장은 빗물에 지워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밟고 간 자리는 지워지지 않았다.

해치의 귀가 천천히 섰다.

왼쪽 앞발의 먹빛이 신발 끈에서 한 뼘 물러나 있었다. 아직 은색은 아니었다.

-동대문 조. 한 가닥이 이어졌다.

학당주의 전음이었다.

-그러나 그 구역에만 끊어진 자리가 열한 곳이다. 나머지 세 구역은 아직 하나도 잊지 못했다. 한 시간 남았다.

해치가 일어섰다. 은색 스니커즈가 바닥을 두 번 두드렸다.

탁, 탁.

화가 제일 작은 손전등을 집어 들었다. 배터리를 뺀 것인데도 주황빛이 남아 있었다. 화는 그것을 못 본 것 같았다.

화는 앞장서려다 말고 수를 돌아보았다.

“수야. 어디로 갈까?”

수는 맥패를 내려다보았다.

푸른 선 하나가, 아직 아무도 건지 않은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